

디자인 수다 10

인테리어 디자인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코로나로 K는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 집안은 여러모로 편안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갑갑함도 있었다. 기분을 전환할 겸 그는 질푸른 이파리로 가득 찬 루소의 그림을 벽에 붙였다. 그림을 볼 때마다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했다. 시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참에 서재를 제대로 꾸미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서재는 아내와 함께 쓰는 공간이라 마음대로 꾸밀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서재 벽지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말했다. 주말에 K와 그녀는 방산 시장에 들렀다. 그는 자연 친화적인 벽지가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운을 뗐다. “자기야, 이거 좀 봐. 18세기 영국 귀족 스타일인데… 어때?” K는 아내의 의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다. 건성건성 대꾸하며 벽지 가게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들은 냉랭한 기운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K는 벽지를 보러 오기 전 어떻게 방을 꾸밀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

K는 자신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이 막연하다고 느꼈다. 아내를 설득할 어떤 논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K는



인테리어 계획 일러스트 / www.freepik.com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검색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장식가’라는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자, 문득 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장식가의 차이가 궁금해졌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장식가’의 차이

K처럼 사람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장식가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같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넓은 범주의 디자인 개념으로는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일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안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환경이라든가 건축, 법, 또는 안전, 음향 등을 고려한 ‘공간 사용 계획’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실내를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거 작업과 배관 설치와 같은 구조적인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건축가나 시공 업체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

반면 ‘인테리어 장식가’는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선택하고 소재의 색상과 특성을 고려한 ‘공간 미학’을 계획한다. 구조적 변경 없이 스타일을 결정하는 모든 미학적 요소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장식가는 주로, 가구 업체, 바닥 업체 등의 전문가와 함께 공간을 구성한

다. 인테리어 장식가가 원하는 스타일의 가구를 찾지 못할 경우, 장식가가 가구 디자인을 직접 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장식가 모두 공간의 기능을 향상하는 사람이다. 인테리어 장식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 없이 일의 범위를 넘나드는 경우 그냥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부른다.

K는 자신이 하려는 일은 인테리어 장식가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아직 막연한 자신의 취향을 찾기 위해 '유명 인테리어 장식가'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엘시 드 울프(Elsie De Wolfe)

흑백의 강렬한 여인이 눈을 사로잡는다. '인테리어 장식가'라는 직업을 만든 여인,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자, 동성연애자, 배우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엘시 드 울프'. 그녀는 1905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한다. 엘시 드 울프는 밝은 톤으로 페인팅한 목재와 패브릭을 믹스앤매치하여 뉴



엘시 드 울프 / ongardendr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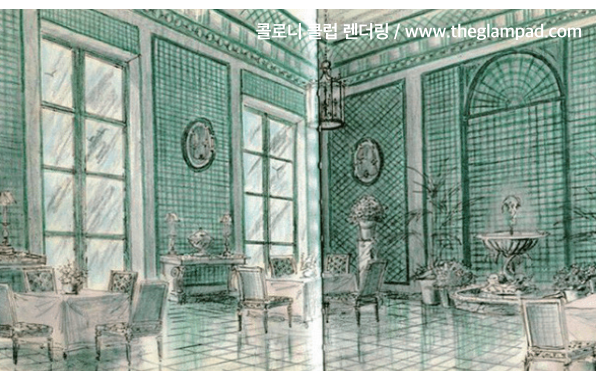
빅토리아 양식 미를 선보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스타일로 재탄생 시켰고, 이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맨해튼에 위치한 상류층 여성 클럽인 콜로니 재설계가 그녀의 대표적인 이력이다. 이 당시 호텔 규모의 클럽 리모델링은 여자가 다루기엔 너무 큰 작업이라며 남성들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녀는 보란 듯이 이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시켰다. 콜로니 클럽은 인테리어 역사의 새 페이지

를 장식한다. 최초로 야외용 트렐리스를 실내 벽면에 붙였고, 고리버들로 만든 가구를 배치했으며 아늑하고 편안한 패브릭을 사용했다.

K는 엘시 드 울프의 인테리어를 보며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가 주는 느낌이 인테리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로시 드레이퍼(Dorothy Draper)

엘시 드 울프가 인테리어 장식가라는 직업을 개척했지만, 인테리어 사업을 전문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도로시 드레이퍼'였다.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교계의 삶보다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싶어 했다. 1923년 드레이퍼가 설립한 인테리어 회사는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큰 호텔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고 가구에서부터 선물용 포장까지 자신의 제품에 브랜드를 붙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장미 배추 무늬 패브릭은 10년 동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판매된 패브릭의 길이를 합치면 자그마치 100만 마



콜로니 클럽 렌더링 / www.theglampad.com



콜로니 클럽 트렐리스를 렌더링 / www.theglampad.com



콜로니 클럽 사진 / ongardendrive.com



도로시 드레이퍼 / www.dorothydraper.com



달리는 부츠 랩프 그랜드 호텔 / www.grownuptravels.com

일이 넘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감각도 남달랐지만, 고정관념에서도 자유로웠다. 뉴욕 타운 하우스의 뒤뜰을 옥상 정원으로 바꾼 기획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성 역할이 정해져 있던 시기에 드레이퍼가 출간한 여성들을 위한 셀프 인테리어책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엘시 드 울프가 뉴빅토리아 양식을 개발한 것처럼 그녀 또한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은 ‘모던 바로크’ 스타일을 발명했다. 바로크의 웅장함과 극적인 색 조합은 마치 현대 오페라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진다. 핑크 도트, 검정과 하양이 반복되는 체크무늬의 바닥 그리고 장미 배추 패턴

은 그녀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과감한 배색의 조합이나 정교한 석고 몰드 그리고 복잡한 거울 프레임은 사람들은 ‘드레이퍼 터치’라 불렀다.

빅토리아 글쓰기 방 사진을 한참 쳐다본 K는 벽의 초록색과 붉은 카펫의 대비가 강렬하다고 생각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소재보다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색이 궁금한 K는 ‘인테리어 색상’을 검색했다. 종이나 직물에서는 팬톤(Pantone) 컬러가 기준이지만, 페인트 산업과 원료 제조업체에서는

NCS(Natural color system)라는 색상 코드가 필요했다. 그리고 배색할 때는 벽 지나 바닥의 색상뿐만 아니라 가구부터 소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K는 나중을 위해 NCS 컬러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색상 코드를 메모했다. 색상표를 보던 K는 모던 바로크의 화려함보단 그냥 모던한 색으로 방을 꾸미고 싶어졌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에일린 그레이(Eileen Gray)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 ‘에일린 그레이’는 모더니즘 디자인의 숨은 진주다. 그녀는 프랑스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흰색 큐브 집을 지었다. 그곳에서 몇 년간 남자친구인 존 벤 아비치(John Ben Avicii)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이 건물에 자신과 아비치의



에일린 그레이 / www.alkov.kr



드레이퍼 카페 친츠 레스토랑 / www.theglampad.com



빅토리아 글쓰기 방 그린브라이어 리조트 / www.theglampad.com

이름을 따, 코드 번호 ‘E-1027’이라고 부르며, ‘사회적 관점에서 본 집 : 최소 공간, 최대 안락함’이라고 묘사했다. 이 집은 폭이 좁은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방마다 지중해가 보이게 설계되었다. 아비치의 친구인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는 이 집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정식 건축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자신의 모더니즘 사상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한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이 집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구들은 르 꼬르뷔지에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E-1027 복도 풍경 / www.alkov.kr

에일린 그레이의 가구는 매우 실용적이지만 본질에 충실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E-1027 거울과 테이블 / www.studionicholson.com

몇몇 가구는 고전이 되어 지금까지도 생산되고 있는데, E-1027 사이드 테이블이 대표적이다. 튜브형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이 테이블은 높낮이가 조절될 뿐만 아니라, 받침의 원형이 뚫려 있어서 침대나 소파 모서리에 두고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다. 그녀는 폭이 좁은 방의 제약을 유쾌한 아이디어로 해결했다. 옷장을 열면 벽이 되거나, 거실 소파가 침대로 바뀌는 등 가구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며 공간 활용을 높였다. 그녀는 언제나 사용자의 편안함을 중심에 두는 인테리어를 추구했다.

에일린 그레이를 공부한 K는 벽지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을 위해 가구의 치수와

높이 등을 꼼꼼히 고려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구도 생각했다.

디자이너들의 사고 과정으로 탄생한 인테리어의 결과를 보면서 K는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인테리어에 대해 잘 몰라 무심했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서재를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고자 제안했다.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며 K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세 크로퍼드(Ilse Crawford)의 말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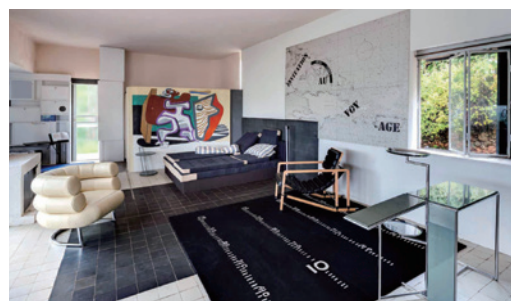
“집은 마음이 사는 곳”이라고. 



비벤덤 의자와 E-1027 테이블 / www.miliashop.com



클래식론 데이베드 / www.alkov.kr



E-1027 / www.theguardian.com